무안군, 낙지공원 노을길 야영장 개장

캠핑데크 10개소·카라반 3개소 조성

야관경관 즐길 수 있는 조명시설 설치

무안군은 지난 1일 망운면에 위치한 무안 낙지공원 노을길 야영장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개장식에는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한 전라남도 의원, 무안군 의원과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노을길 야영장 개장을 축하했다.

개장식은 개식선언, 내·외빈소개, 국민의례, 사업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의 최고 노을명소인 낙지공원에 노을길 야영장이 개장함으로써 코로나시대 지친 이들에게는 치유와 힐링의 장소로, 관광객들에게는 바다와 노을을 통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 낙지공원 노을길 야영장은 무안군 망운면 노을길 143에 위치해 있으며, 낙지공원 송림숲에 캠핑데크 10개소, 카라반 3개소를 조성하고 야관경관을 즐길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개장 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호평을 받아왔다.

노을길 야영장 예약과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노을길 야영장 관리사무소(☎ 061-453-83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 손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업인 공동홈센터' 개소

1인실 4개실·2인실 4개실 갖춘 독립거주형 주거시설

함평군은 1일 손불면 농업인 공동홈센터 앞에서 농업인 공동홈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농업인 공동홈센터는 1인실 4개실, 2인실 4개실을 갖춘 독립거주형 주거시설로 함평군이 지난 2017년부터 총 사업비 57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하나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김형모 함평군의회 의장, 김석봉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 기관사회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야외 행사 거리 규정 등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소식은 센터 소개 및 경과보고, 테이프커팅, 기념촬영, 시설 시찰 등으로 이뤄졌다.

앞서 군은 효과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양중)와 농업인 공동홈센터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 공동홈센터는 운영관리 규약의 입주자 기준에 충족하는 함평군 거주 60세 이상의 손불면 거주자를 우선 대상자로 운영된다.

군은 농업인 공동홈센터가 향후 미래 농촌의 주거 모델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공동홈센터와 함께 완료된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주요 시설들은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을 위한 쉼터, 교류 소통 공간으로 손불면 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복지혜택의 거점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왼쪽 다섯 번째), 김형모 함평군의회 의장(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공동홈센터 개소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이상익 군수는 "농업인 공동홈센터를 비롯해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시설들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주서비스 제공과 함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영광군, 숲해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광군은 물무산행복숲, 산림박물관, 테마 식물원에서 산림교육서비스 숲해설과 유아숲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98회에 3,954명이 참가했다. 영광군 산림교육 서비스는 유아부터 장년층까지 연령대별·계절별로 맞춤형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숲 해설 및 유아숲 교육 운영 위탁업체인 '행복숲'에서 진행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숲 해설가는 5명, 유아숲 지도사는 3명으로 누구나 사전에 전화(061-350-5760)로 신청하면 숲해설·유아숲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확대

신안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 지원시 기존에는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했지만 개정안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 금액도 기존에 첫째아 15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둘째아 25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셋째아 3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넷째아 이상 450만원에서 970만원으로 대폭 증액 지원된다. 신안=이덕주기자

목포시, 연내 마무리 사업에 하반기 집중

목포해상판타지쇼·반려동물 놀이터 등…목포문학박람회, 첫 시도

목포시가 주요 사업을 마무리하며 2021년 하반기 시정을 펼친다.

상반기 최대 목표였던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성공했던 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한 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에 집중할 방침이다.

7월에는 평화광장에서 목포해상판타지쇼(이하 판타지쇼)를 개최한다.

시는 평화광장의 명물인 춤추는 바다분수, 해상무대(490㎡) 공연, 불꽃쇼가 한 데 어우러져 판타지쇼를 펼쳐 입체적이고, 생동감넘치는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23일 평화광장 리모델링 및 해상무대 준공과 어우러진 개막행사로 포문을 열어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10시 신나는 목포를 평화광장에서 선보인다.

고하도 해상데크 2차분도 7월말 개통할 예정이다. 2차분(길이 738m, 폭 2m)은 지난 2019년 11월 개방된 1차분(1.08km, 폭 1.8m)의 반대방향으로 뻗어나간다.

2차분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현재 안전시설·표지판 설치 등이 진행 중이다. 길이가 1.82km로 확장됨에 따라 해상데크 이용자는 고하도 해안절벽, 유달산, 목포내항 등을 더욱 다양한 지점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차분에서는 2개소에 설치된 강화유리(길이 16m) 위에서 스릴감을 느낄 수 있고,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1940년대에 설치한 해안동굴도 살펴볼 수 있다.

8월에는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을 개장한다. 유달산 달성주차장 옆의 유리온실이었던 난 전시관을 철거하고 조성된 체험장은 연면적 856㎡, 지하1층·지상 2층 규모로서 전시실, 유아목재놀이터, 목재놀이체험장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건립공사가 막바지인 단계로서 시는 오는 8월 5일 개장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9월에는 부주산 근린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한다. 규모는 3,500㎡로 약 25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시설과 양육자의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는 놀이터는 현재 조성공사 중으로 시는 오는 9월말 개장할 예정이다.

10월에는 7~10일까지 4일간 '목포,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목포문학관, 원도심, 평화광장 등 목포 전역에서 개최된다.

시는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우리나라 문학사의 거목(巨木)과 인연이 깊은 목포의 특징을 활용해 문학박람회 개최를 결정했다.

시는 자문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진용을 구성해 개최를 준비해가고 있으며, 개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챌린지 이벤트인 '북적북적 문학박람회'를 진행 중이다.

12월에는 외달도 바다자연정원 조성이 마무리된다. 2019 어촌뉴딜30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바다자연정원은 외달도 고유의 풍경과 자원을 활용해 정원을 명소화하는 사업이다.

인위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시설은 철거하고,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해 국제슬로시티 이미지와 연계한다.

김정환기자